

## 착한임대인 “고통분담 불구... 돌아오는 혜택 ‘미미’”

**광주지역 착한임대 운동 ‘시들’**  
고금리·공실 이중고 경제적 부담  
광주, 세제혜택 신청자 80% 급감  
“업종 제한 해제·지원금 확대를”

팬데믹 기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임대’에 나선던 광주지역 임대인들이 고금리와 공실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이 미미한데다 고통분담만 강요하는 정책 탓에 착한 임대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착한임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착한임대인 제도’에 동참한 임대업자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551건으로 집계됐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745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나 2022년에는 151건으로 80% 가량 크게 줄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경기 회복세로 돌아서자 임대료 감면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2020년 3월 신설됐다.

임대업자들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국회는 착한 임대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광주시도 임대료를 10%이상·3개월이상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200만원까지 지방세를 감면했

었다.

착한 임대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됐다는 평가지만 임대인은 코로나 완화로 경제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닥치는데 공실까지 늘어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착한임대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체험할 만큼의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대인 A씨는 “팬데믹 기간 상가 당 3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었지만, 상가가 유흥업소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전혀 볼 수 없었다”며 “2년 이상 임대료 인하를 하고도 임차인이 폐업해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데다 실효성 없는 ‘착한 임대인 제도’로 임대인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인 B씨는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하면서 6억을 대출받았다”며 “최근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월 100만원가량 늘어난데다 건물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 또 공실이 크게 늘었다”면서 “체험할만큼 세제혜택이 큰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착한임대인 제도를 근거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때마다 난감하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속·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업종 제한 해제, 세제 지원액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금감면은 시정 상황에 따라, 개인별 소득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준이 촘촘하기 때문에 세제 규모가 정해졌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고성신 농협광주본부장 등이 북구 석곡동 광주농협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에서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전국 최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4월1일 본격 가동

**의사방문 진료 등 7대 서비스 제공**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최초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02억 원(시비 79억 원·구비 23억 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광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

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 원이다.

신청은 동행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장구인 돌봄콜(1660-2642)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결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2642)’로 정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인터뷰

김해명 (재)지스트 발전재단 이사장 ▶7면

###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